

인기를 끄는 개성고려인삼제품들

— 고려인삼 전시장에서 —

예로부터 개성고려인삼은 명약중의 명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개성고려인삼 한뿌리가 금 한근보다 낫다고 일러왔다.

그 약효가 하도 심비로와 《신초》, 사람들에게 퍼를 준다고 하여 《혈삼》이라고 불리우는 개성고려인삼의 금새를 두고 한 말이다.

개성고려인삼은 장생(오래 사는 것), 불로(늙지 않는 것), 익기(기운을 두는 것), 경신(몸을 가볍게 하는 것)의 효능이 높은 명약으로 알려져있다.

세계적으로 개성고려인삼의 약효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만 하여도 5,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개성고려인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며 당뇨병 예방과 스트레스제거 및 피로회복, 기억력증진, 소화방지 등에서 특효가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분석한데 의하면 개성고려인삼은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 및 물질대사계통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인삼의 약효는 한마디로 정상화작용이다.

즉 높은 혈압은 낮추고 낮은 혈압은 높여주는 기능, 인체의 모든 장기가 정상화되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개성고려인삼의 뛰어난 약리작용이다.

또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

제하며 암유전자를 정상유전자로 되돌아가게 하는 항암작용을 한다.

정신적 및 육체적피로를 풀며 방사선피해를 막고 피부부를 아름답게 하는데서 개성고려인삼을 따를만 한 것이 없다.

온갖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데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개성고려인삼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명약으로서의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2동에 개성지방에서 자란 인삼으로 만든 갖가지 인삼가공제품들을 판매하는 고려인삼전시장이 있다.

이곳 전시장에서는 개성고려인삼을 넣어 만든 차, 커피, 단국, 술을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인삼가공제품들을 봉사하고있다.

이곳을 찾은 기자에게 박성애봉사원은 개성고려철통홍삼, 개성고려원형백삼, 개성고려홍삼쌀, 개성고려인삼차, 개성고려인삼액스 등

많은 인삼가공제품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전시장에서는 인삼타공, 인삼꿀떡, 인삼소꼬리보신탕, 인삼달걀공기찜, 인삼새우볶음, 인삼종합삼계찜, 인삼해삼초침, 인삼소라무침, 인삼양파, 인삼백김치를 비롯하여 개성고려인삼을 넣어 만든 특색있는 음식들도 봉사하고있다.

특히 인삼담뱃은 개성지방에서 키운 인삼과 닭을 가지고 개성시의 이름난 요리사에서 전승받은 기술로 만드는 것으로 하여 그 맛과 향취가 유별하다고 한다.

지난 시기 개성고려인삼제품들과 식품들은 국제상품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은 개성고려인삼을 넣어 만든 차, 커피, 단국, 술을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인삼가공제품들을 봉사하고있다.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은 개성고려인삼을 넣어 만든 차, 커피, 단국, 술을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인삼가공제품들을 봉사하고있다.

금광사는 평안북도 의주군 금광리 석송산에 있는 사찰이다.

이 사찰은 1848년 이전에 세우고 19세기 중엽에 다시 지은것이다.

석송산은 경치가 아름다워 《의주금강》이라고 일러왔으므로 금광사를 금강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금광사에는 중심건물인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백화전, 청운당, 만세루 등 열한채의 건물들이 처마를 서로 마주 대고 서있다.

대웅보전은 정면 3칸(9.25m), 측면 2칸(6m)의 큰 건물인데 10개의 두리기둥이 합각지붕을 떠받치고있다.

이 건물의 특징은 두공이

역사(유적)

금 광 사

포식과 익공식을 배합한것이다.

정면은 바깥 5포, 안 7포에 띠꽃을 조각한 산미로 지붕받침을 장식하였다면 뒤면은 단익공으로 소박하게 처리되었다.

정면의 기둥은 보통 흐름식기둥이 아니고 밀직경과 우부반 직경의 차이가 적게 맞닿게 다듬었으며 다른 건물보다 나지막한 평판방을 둘러앉았다.

대웅보전앞에 있는 만세루는 정면 3칸(10m), 측면

측면 4칸(9.8m)의 단익공 홀처마의 합각집이며 칠성각은 정면 2칸(4.65m), 측면 1칸(2.6m)의 두공이 없는 홀처마 배집이다.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여러 가지 지붕이 처마를 맞대고 있다.

금광사는 규모가 큰 건물의 하나로서 조선봉건왕조 말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본사기자

은 보금자리이며 인류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금광사전경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사화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4)

글 전철호, 그림 채대성

강보는 어머니의 말에 공감까지 가지 않았다.

아무리 학식이 깊을지라도 길을 헛들면 한생 고생뿐일진대 제때에 헛들은 길을 알아차리고 두발을 뽐는 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강보는 엄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도 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공명을 탐내다보니 제 혼자만이 큰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것이 바로 네 잘못이니라. 너는 마땅히 함께 일하는 웃어른들에게 의탁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

강보는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가 력서를 만드는 일에서 저만 독재 일인체 하며 남의 힘을 믿지 않은것은 사실이었던것이다.

《레이 스승을 찾아가 제 잘못을 빌고 그 어른의 가르침도 받아봐라. 알겠느냐?》 강보는 더 깊이 고개를 떨구었다.

에오라지 이 자식의 장래를 위해 온갖 고생을 맡겨 여기까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실망케 하는것은 정녕 불효일진대 어쩌면 이 강보가 그렇게까지 될수 있단 말인가?!

강보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어머니! 제 잘못 생각한것 같소이다.》

김씨의 리슬러실한 두손이 강보의 손을 포근하게 감았다.

《이 에먼 제 아들을 믿는 다. 암, 믿고말고.》

이 밀직사의 장관으로 부임된 안향을 찾아가었다.

작을사 한키나 등근 얼굴에서 영채를 뽐는 두눈으로 하여 범상치 않아보이는 안향은 집을 찾아가 강보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가 찾아온 사연을 안안향은 오늘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산놀이를 가자고 하였다.

강보는 제자를 위해 나라의 큰일을 돌보는 스승이 하루씩이나 시간을 내려는 그 마음에 목이 베였다.

사제간의 정을 흔할 때 과거를 주관한 스승과 그 스승의 손에서 급제한 제자간에 오가는 정만큼 자별한 정은 없을것이었다.

당시 과거제자들은 과거를 주관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스승으로 여기고 공경하면서 한생 제자의 도리를 지키는것을 제일가는 미덕으로 여기고있었다.

안향을 따라 천마산으로 가면서 들려주는 그의 뜻깊

은 이야기에 강보는 깊이 심취되고말았다.

대개 산모양이 빼어나면 그 봉우리는 돌로 되고 산에 호르는 골목도 구슬같이 맑은데 강과 바다가 사귀는 곳에 솟았으면 그야말로 불만한 산이다. 조선에는 그런 산들이 많은데 금강산이며 개경의 오관산, 한양의 삼각산, 서해도의 구월산을 꼽을수 있다. 저기 보이는 오관산은 그 형세가 지극히 묘하여 과연 멋스럽다.

안향의 구수한 이야기에 끌려 강보는 어느새 평통팔에 당도했는지 알수 없었다.

평통팔에 들어선 강보는 입을 딱 벌렸다. 골안에 있는 평통사의 현란함도 눈부시지만 그 사찰을 안고 솟은 오관산의 절묘함엔 더 눈이 부셨다. 봉우리마다 신통히도 판(모자)모양의 큰 바위돌을 일부러 올려놓은듯싶은 오관산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세상에 이런 절승도 있었는가.

강보로서는 혀를 빼물만도 할일이였다. 지금껏 광방에 들어앉아 책이나 번지는 섯님으로 살아왔으니 언제 한번 바깥구경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것이다.

《또 가세나. 이제부터가 진짜야.》

은 보금자리이며 인류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안향에게 이끌려 천마산 마루에 오른 강보는 노상 입을 다물줄 몰랐다. 안향이 들려주는 명소마타의 전설도 심비로왔기에 경이였다.

《내가 다른 나라에 갔을 적에 그 나라 선비들이 입을 닳도록 자랑하는 러산에도 가보았네. 내 눈엔 러산이 아름답긴 해도 우리의 이

지 않나. 우리 나라에는 정말로 명산이 많대네.》

안향은 모르는것이 없는 것 같았다. 하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문인들이 그의 학식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세상에 그토록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금수강산을 떨치는 일을 찾아해야 할것세. 암, 그

말이 하구말구.》

안향은 사방을 둘러보고 나서 계속 입을 열었다.

《남에게 뒤지던 놀리운다는 말이 있네. 나라도 마찬가지이지. 나라가 흥하려면 인재, 특히 젊은 인재가 많아야 해. 나라를 위해 큰일을 감당할수 있는 젊은 인재가 많아야 강대국이 될수 있고 인재가난에 든 나라는 약소국을 면할수 없네. 남아가 뜻을 품고 글을 닦았으면 약관(20살)에는 세상을 놀래울 큰일을 해냈다는 야심을 가져야지.》

《우리 나라는 그야말로 금수강산일세. 북쪽에는 조종의 산 백두산이 솟아있고 북쪽에는 조종산, 서해도에는 금강산, 서해도에는 구월산, 전라도에는 지리산이 솟아있네. 그리고 저 남해의 한복판에 있는 제주도에에는 이름난 한나산이 있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10)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자 김성국

압록강국제체육단 사격선수인 김성국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남자10m공기권총사격경기에서 제1위를 하고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을 수립하였다.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는 중국, 인디아, 이란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온 우수한 남, 녀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남자10m공기권총사격경기 결승경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선수는 두 명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점수차이가 날 때까지 두 선수가 경기를 계속해야 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중승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번째와 두번째 경기점수는 같았다.

하지만 세번째 경기에서 김성국선수는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을 세웠다.

그는 아시아선수권을 보유하였을뿐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자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김성국선수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저절로 마련된것이 아니었다.

훈련의 나날 넘기 힘들고 비도 있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과학적인 훈련방법에 의거하여 짧은 기간



에 집중성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그것은 아시아선수권보유와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로 이어졌다.

오늘도 그는 더 큰 경기성과 비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일념을 안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농약놀이

다는데서, 군물은 군대의 기물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었다.

농약은 이밖에도 명절날 유희, 오락때에도 벌어졌다.

농약기는 타악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징, 팽과리, 장고, 북, 소고 등의 악기로 연주되었다.

농약놀이는 보통 팽과리를 치는 쇠잡이의 주역을 담당 한 상좌가 지휘하였는데 크게 농악무, 농악회, 농악노래의 세가지로 진행되었다.

농악무는 많은 사람들이 둥그렇게 켈을 지어 돌아가며 춤을 추는 원무형식의 마당놀이와 개인연기를 보여주는

는 구정놀이를 진행되었다. 농악회는 잡색의 탈놀이를 이루어지는 대렬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노래는 한자리에서도 부르 고 춤을 추면서도 불렀는데

1998년 초 평양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서 창조된 고대문화를 대동강문화라는 학명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세계 5대문화(에집트의 《닐강문화》, 서남아시아의 《랑강문화》, 인디아의 《인드라문화》, 중국의 《황하문화》, 조선의 《대동강문화》)의 하나로 선포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동강유역은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와 조선사람의 발원지로, 고대문화의 중심지, 조선민족의 성지로 되었다.

김진혁



조선봉건왕조시기 농악무(복원도)

사화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4)

글 전철호, 그림 채대성

강보는 어머니의 말에 공감까지 가지 않았다.

아무리 학식이 깊을지라도 길을 헛들면 한생 고생뿐일진대 제때에 헛들은 길을 알아차리고 두발을 뽐는 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강보는 엄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도 제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공명을 탐내다보니 제 혼자만이 큰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것이 바로 네 잘못이니라. 너는 마땅히 함께 일하는 웃어른들에게 의탁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

강보는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가 력서를 만드는 일에서 저만 독재 일인체 하며 남의 힘을 믿지 않은것은 사실이었던것이다.

《레이 스승을 찾아가 제 잘못을 빌고 그 어른의 가르침도 받아봐라. 알겠느냐?》 강보는 더 깊이 고개를 떨구었다.

에오라지 이 자식의 장래를 위해 온갖 고생을 맡겨 여기까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실망케 하는것은 정녕 불효일진대 어쩌면 이 강보가 그렇게까지 될수 있단 말인가?!

강보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어머니! 제 잘못 생각한것 같소이다.》

김씨의 리슬러실한 두손이 강보의 손을 포근하게 감았다.

《이 에먼 제 아들을 믿는 다. 암, 믿고말고.》

이 밀직사의 장관으로 부임된 안향을 찾아가었다.

작을사 한키나 등근 얼굴에서 영채를 뽐는 두눈으로 하여 범상치 않아보이는 안향은 집을 찾아가 강보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가 찾아온 사연을 안안향은 오늘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산놀이를 가자고 하였다.

강보는 제자를 위해 나라의 큰일을 돌보는 스승이 하루씩이나 시간을 내려는 그 마음에 목이 베였다.

사제간의 정을 흔할 때 과거를 주관한 스승과 그 스승의 손에서 급제한 제자간에 오가는 정만큼 자별한 정은 없을것이었다.

당시 과거제자들은 과거를 주관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스승으로 여기고 공경하면서 한생 제자의 도리를 지키는것을 제일가는 미덕으로 여기고있었다.

안향을 따라 천마산으로 가면서 들려주는 그의 뜻깊

은 이야기에 강보는 깊이 심취되고말았다.

대개 산모양이 빼어나면 그 봉우리는 돌로 되고 산에 호르는 골목도 구슬같이 맑은데 강과 바다가 사귀는 곳에 솟았으면 그야말로 불만한 산이다. 조선에는 그런 산들이 많은데 금강산이며 개경의 오관산, 한양의 삼각산, 서해도의 구월산을 꼽을수 있다. 저기 보이는 오관산은 그 형세가 지극히 묘하여 과연 멋스럽다.

안향의 구수한 이야기에 끌려 강보는 어느새 평통팔에 당도했는지 알수 없었다.

평통팔에 들어선 강보는 입을 딱 벌렸다. 골안에 있는 평통사의 현란함도 눈부시지만 그 사찰을 안고 솟은 오관산의 절묘함엔 더 눈이 부셨다. 봉우리마다 신통히도 판(모자)모양의 큰 바위돌을 일부러 올려놓은듯싶은 오관산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세상에 이런 절승도 있었는가.

강보로서는 혀를 빼물만도 할일이였다. 지금껏 광방에 들어앉아 책이나 번지는 섯님으로 살아왔으니 언제 한번 바깥구경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것이다.

《또 가세나. 이제부터가 진짜야.》

《우리 나라는 그야말로 금수강산일세. 북쪽에는 조종의 산 백두산이 솟아있고 북쪽에는 조종산, 서해도에는 금강산, 서해도에는 구월산, 전라도에는 지리산이 솟아있네. 그리고 저 남해의 한복판에 있는 제주도에에는 이름난 한나산이 있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대동강유역은 원인의 조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 물산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류의 발생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안향에게 이끌려 천마산 마루에 오른 강보는 노상 입을 다물줄 몰랐다. 안향이 들려주는 명소마타의 전설도 심비로왔기에 경이였다.

《내가 다른 나라에 갔을 적에 그 나라 선비들이 입을 닳도록 자랑하는 러산에도 가보았네. 내 눈엔 러산이 아름답긴 해도 우리의 이

지 않나. 우리 나라에는 정말로 명산이 많대네.》

안향은 모르는것이 없는 것 같았다. 하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문인들이 그의 학식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세상에 그토록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금수강산을 떨치는 일을 찾아해야 할것세. 암, 그

말이 하구말구.》

</